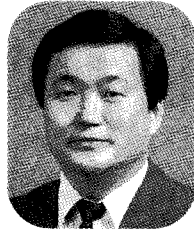


돼지오제스키병 -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최 홍 열 사무국장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 오제스키병 발생동향

지난해 3월말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부터 발생지역의 가축이동제한, 출하가축에 따른 지역별 양축농가간의 갈등, 대일돈육수출 중단, 구제역 재발방지 특별대책, 소독 실시 등 양돈 농가들은 1년여 동안 여러 가지로 시련을 겪으며 보내야 했다.

지난해 말과 금년 들어서는 돼지오제스키병이 경기 용인, 강원 횡성, 전북 익산, 경남 김해·산청등에서 발생되었기에, 돼지콜레라 청정화, 구제역 재발방지 등으로 가뜩이나 어렵게 농장을 지켜가고 있는 양돈농가들에게 또다른 걱정을 더해주고 있다.

돼지오제스키병은 1987년 경남 양산군지역에서 국내 최초로 발생된 이후 그동안 경기 남양주·김포·용인, 충남 서산에서 발생되었

고, 아직도 용인·화성, 충남 홍성·당진, 전북 익산 등 몇 개 지역이 상재지로 밝혀졌고 매년 발생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돼지오제스키병의 주요 증상은 처음 발생하는 농장에서는 임신모돈의 재발정, 유사산, 허약자돈 분만등 번식장애를 나타내고, 새끼 돼지는 구토, 설사, 벌벌떨며 뒷걸음치거나 빙빙도는 신경증상과 호흡기 증상을 나타낸후 대부분 폐사되어 피해가 크다.

그러나 이 병이 발생한지 수개월이 지난 농장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돼지가 감염되었으므로 몸속에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임신모돈은 번식장애 소견이 거의 없고, 새끼돼지도 어미젖으로부터 이행항체를 받기 때문에 치사율이 거의 없으나 모체이행 항체가 소실되는 시점인 비육초기 돼지는 감염증상을 보여 성장이 부진하고 호흡기 질병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표 1> 연도별 돼지오제스키병 발생추이

구분	'96	'97	'98	'99	2000	'01. 3
건수	30	33	10	68	221	157
두수	1,399	940	122	2,268	7,162	1,374

양돈장의 경제적 피해가 크다.

2. 오제스키병 일제검사

방역본부에서는 작년 오제스키병이 더 이상 확산된다면 근절이 더욱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농림부와 수차 협의·건의한 바, 11월에 예산지원을 받아 오제스키병 감염지역과 의심지역인 경기, 강원 철원, 충남, 충북 등 4개도 14개 시·군지역의 4,167농가를 대상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방역요원 113명을 동원하여 2,532농가에서 모돈·웅돈 76,086두를 채혈하여 일제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검사결과 120농가의 1,342두가 양성으로 확인되어 해당 양성모돈을 거의 전 두수를 도태하였으나 아직도 용인지역은 처리가 일부 미진한 상태이다.

날씨가 매섭게도 추었던 지난 겨울날, 당시 전국의 방역요원 거의 전부인 113명이 16일 동안을 비좁은 여관방에서 서너명씩 합숙하면서 매일 연인원 1,913명이 억센 모돈을 채혈하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넘기게 되었다.

무리한 일정도 문제였지만 현지 해당지역에서 보정인력 협조가 거의 없이 동원된 방역요원끼리 채혈하자니 보통 어려운데 아니었다.

오제스키병 확산을 막아보기 위한 방역요원의 사명감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어느 조

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이 난을 빌어 그때 고생한 방역요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이런 고생에도 불구하고 양성지역에 대한 후속적인 방역대책이 수립·시행했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정부에서는 구제역 재발방지특별대책에 파묻혀서 부진한 사후관리가 될 수 밖에 없었다.

3. 경남 김해·산청의 오제스키병 방역

경남도에서 추적조사한 발생경위를 보면, 김해시 초원농장(김은철)이 '01. 3. 5.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신원리 대성농장(이상용)으로부터 103두(모돈 101, 웅돈 2)를 구입하여 김해, 산청소재 축주농장에 입식한 후 오제스키병 감염농장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의 사례는 대표적인 딸이농장 돼지가 유통되어 피해가 생겼고, 판매농장까지 정확하게 역학조사가 이루어져 감염경로가 명확하게 밝혀진 첫 사례가 된 셈이다.

경남도에서는 이동제한과 소독을 실시하고 발생농장 전두수를 살처분 명령하였으며, 4월 11일~12일 해당농장 전두수 살처분하여 신속하게 방역조치하였다.

다른 발생 시·도에서도 이와같이 방역기관이 적극적으로 방역조치가 조속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표 2〉 14개 시·군 일제검사 결과 양성확인

양성확인지역	용인 72, 이천 4, 평택 1, 화성 6, 철원 6, 진천 3, 괴산 3, 당진 14, 홍성 11(9개 시·군 120농가)
비발생확인	안성, 여주, 포천, 충주, 논산(5개 시·군)

〈표 3〉 발생현황

발생농장	축주	사육두수	발생두수	채혈두수	발생일자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378 (초원농장)	김은철	435	5	129	4.3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	49	2	49	4.4

4. 향후 추진대책

가. 전북익산 왕궁단지 방역지원

왕궁단지의 오제스키병은 지난 2월 27일 전북 축산진흥연구소의 검진결과 확인되었고, 3월 3일부터 10일간 전북 방역요원을 동원하여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지역 오제스키병 방역을 위해 농림부에서 예방약품비(360천두)와 접종비 216백만원이 지원되었고 진단키트 15천두분을 추가로 공급하였다. 방역본부에서는 전북도 및 익산시와 협의하여 전북 방역요원 15명을 10일간 동원하였고, 왕궁단지내 전 모돈을 채혈검사할 수 있도록 방역기금에서 830만원을 긴급 지원하였다.

나. '01년 오제스키병 채혈검사 계획

방역본부의 금년도 오제스키병 채혈검사 계획은 23511호에서 300천두를 채혈기로 하였다.

이중 200천두는 돼지콜레라 혈청검사를 위한 채혈시료를 이용하여 오제스키병도 동시에 검사하도록 하였으며, 100천두는 오제스키병 발생지역(경기, 강원, 충북, 충남)에서 각 방역단별로 모돈 채혈 목표를 부여하여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돈채혈검사시에는 특히 오제스키병 상재지역인 용인, 화성, 당진, 홍성, 왕궁단지등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채혈하고 방역기관과 협의하여 양성축을 조기에 도태하도록 촉구하고, 집단지역별로 오제스키병 방역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5. 양돈농가가 지켜주어야 할 일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방역정책과 방역단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양돈농가 각 농장별로 방역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다음 몇가지 사항만을 꼭 준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 주기적으로 농장소독을 내가 먼저 앞장서서 실시합시다.
- 출입자,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과 출입통제를 이행합시다.
- 돼지 구입시에는 반드시 오제스키병 비발생지역의 농장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입식후에는 검사를 의뢰합시다.
- 떨이돼지를 구입하지 말도록 이웃농가에 계도합시다.
- 축사시설에는 개, 고양이 접근은 통제하고 쥐, 해충구제를 실시하여 오제스키병 감염경로를 차단합시다.
- 농장의 감염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방역요원의 농장채혈시 적극 협조합시다. **양돈**

〈표 4〉 왕궁단지 모니터링 검사결과

구분	사육농가		발생농가			
	농가수	두수	호수	검사두수	양성두수	양성률
왕궁	416	89,916	139	3,935	905	23
용동	1	130	1	18	2	11
계	417	90,126	140	3,953	907	23